

다산포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역사의 퇴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는 상징적 자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보수정당의 대통령후보가 되고 나아가 대통령선거의 승리를 위하여 도덕적 윤리적 정당성이 필요했을 때, 그는 이 원장의 후광을 지속적으로 활용했다. 그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이 원장에게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를 표했고, 인수위원회에 관한 조언까지 들었다.

1945년 11월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와 요인들이 일차로 귀국했을 때 이들과 함께 돌아왔던 10세 소년 이종찬은, 이로부터 78년이 지난 작년 6월 광복회 회장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광복회장 취임 후에 열린 광복절 기념식의 대통령의 경축사는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지만, 정작 그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로부터 2주일 후에 이루어진 육군사관학교 교정의 독립운동가 흉상문제였다.

3·1절 99주년을 기념하여 건립한 이회영,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등 독립군 및 광복군 지도자들의 흉상을 철거 이전한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광복회장도 이에 경악했다. 그는 국방부의 계획을 '반역사적 결정'으로 규정하고 장관에게 경고문을 보냈다. 이에 당황한 국방부는 홍범도장군의 흉상철거로 문제를 축소시켰지만, 성난 여론을 잠재울 수 없었다. 더구나 2022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이 논란을 조재현 신원식의원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하자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졌다.

지난 광복절 직전에 독립기념관장이 새롭게 임명되었다. 광복회와 독립운동기념단체들은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광복회장은 역사를 다루는 국가기구들의 인사참사를 거론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에 일제의 밀정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분노했고,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국방부장관과 안보실장의 갑작스러운 교체 의의를 말해주는 듯했다. 평화는 없고 자유만 수없이 반복된 이 경축사가 엉뚱한 내용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드디어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나섰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말 그런가?

일본의 8·15는 패전기념일이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를 꺾었던 일본의 한 여자 탁구선수라는 지란의 '특공자료관' (가미카제 관련 박물관)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과거의 군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마저 사라진 현재의 일본 우파정권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동안 중국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의 일부 양심세력들도 우려하는 효과를 우려한다.

우리는 지난 'IMF 사태'에서 경제는 항상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고,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정치가 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거기에는 항상 정치지도자의 역사적 무감각과 아집, 소통 부재가 있었다. 이제 우리는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역사도 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 정부의 친일 일본군도 정작은 한국 보수주의의 궤도를 심하게 이탈한 것이다.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이 곧 일본의 극우파를 대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라의 토대가 무너지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꿈꾸는 2040



임인자 위민연구원 이사·소년의서 대표

우리가 버리고 있는 쓰레기 어디로 갈까?

남구, 동구 등 구마다 그 실태가 다르고 동네마다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양태가 다르다. 또한 아파트 단지과 주택 등 주거 형태에 따라서도 그 양상이 달랐다.

이는 지자체에서 쓰레기에 관한 정책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와 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었다. 쓰레기 분류와 수거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공동체의 원칙이 수립돼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모습부터 놀랄 정도로 달랐다.

플라스틱 병뚜껑을 수집하며 직접 이러한 현장을 살펴보고 되면서 우리동네 쓰레기 문제를 좀더 가까이 공부하고,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 함께 공부하기 위해 강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일반쓰레기 중 수거된 쓰레기는 폐기물 중에서 환경에 무해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질만을 파쇄 및 분쇄 후 선별 및 건조를 통해 생산된 폐기물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인 폐기물자원 생산시설(SRF, Solid Refuse Fuel Facility)로 이동하는데 이는 현재 양과동에 위치한 위생매립장시설이다. 쓰레기를 폐기물연료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위생매립장 관계자에 따르면, 쓰레기가 연료로 쓰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잘 분류·배출하는 것이 중요한다. 특히 우산, 대형 이불, 젖은 쓰레기 등이 가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연료가 되지 못한 쓰레기들은 현재 양과동에 있는 위생매립장시설 옆 매립장에 직접 매립되고 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및 기타 생물학적 폐기물 처리시설(BWT, Biological

Waste Treatment Facility)로 이동하고 있으며, 재활용 쓰레기는 현재 재활용폐기물 선별시설로 옮겨지고 있다.

폭우, 폭염, 태풍, 우리의 일상을 뒤흔드는 기후변화와 위기 속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와 실천을 위해 쓰레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수도권, 2030년부터는 전국에서 정부의 '생활폐기물 직매입 금지 원칙'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직접 매립이 금지되면서, 현재 광주에서는 소각기 소각장 시설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각 지역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소각장 시설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논의에 앞서 우리는 생산-소비-폐기라는 고리에 놓인 쓰레기 문제를 순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쓰레기와 나,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문제를 다시 사유해야 한다. 최근 광주 동구에는 산수2동 자원순환시범마을이 운영되기도 하고, 친환경자원순환센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한걸음가계와 같은 민간단체에서는 재활용, 재사용, 공유, 수선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시작 속에서 쓰레기를 삶의 중요한 가치로 다시 바라보는 우리의 첫걸음은 쓰레기를 잘 분리해 잘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다. 동네마다 쓰레기 실태가 다른 이유는 공동체 인식으로부터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쓰레기 정책도 중요하다. 그리고 '남이 그러니 나도 이렇게'라는 인식을 버리고 쓰레기를 잘 버리는 한걸음의 변화도 필요하다.

양림골목비엔날레, 다정한 안부가 만든 축제

것 같고 이웃집 손가락 개수도 알아야 할 것 같은 부채감에 멀리했던 관계들은 괜한 걱정이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절한 온도의 관심. 서로에게 보이는 이상한 마음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로 작용했다.

김도훈의 '우리 이제 낭만을 이야기합시다'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다정함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을 다정함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웃에게 인사와 관심을 건넨다고 세상이 바리아터티하게 달라진 것 같지만 서로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살아야 하는 이유다.

이웃의 안녕을 바라는 다정함에서 시작된 축제가 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양림골목비엔날레. 지난 2020년, 팬데믹으로 일상이 멈추고 생기를 잃어가던 양림동에서 이 축제의 싹이 틔어졌다. 양림동에 살거나 동네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기획자, 주민 및 상인이 모여 마을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마을 내 다양한 장소에서 펼쳐지는 분산형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양림골목비엔날레의 시초였다.

누군가 오랫동안 지내던 한옥, 제약회사 창고로 사용되던 건물, 유치원이었던 벽돌집이 전시장이 되었다. 이처럼 삶과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소에서 펼쳐진 전시는 전통적인 화이트 큐브와 확연히 다른 매력을 선사했다.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

의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의 공연은 물론, 작가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보는 예술 체험도 기획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에게 일상 속에서 예술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마을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은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상황을 걱정하고 안부를 묻는 다정한 로컬 커뮤니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웃 간에 다정하게 건넨 인사와 작은 관심들이 모여 축제를 만들어냈고, 이는 단순한 예술 행사를 넘어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양림골목비엔날레를 몇 차례 운영하며 공동적으로 마음에 새긴 대전제가 있다.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 쉬운 길은 아니다. 일일이 찾아가 축제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해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이벤트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래도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하는 주민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방향이 옳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양림골목비엔날레와 같은 축제가 더욱 많아질 바란다. 다정하게 안부를 물으며 서로의 삶을 나누는 문화가 퍼져 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관심과 다정함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가길 기대해 본다.

社說

국립의대 공모 순천대 참여 입장 확산되길

순천대의 공모 참여 기피로 팍 막혔던 국립 전남 의대 설립 공모 절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순천대가 단독으로 의대 신설을 추진하기 보다는 공모에 참여하는 것이 국립 의대 유치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업무를 관할 광역지자체를 패싱하고 직접 추진할 경우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입장 변화여서 일각에서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천대 의대 유치 전략 바꿔야'라는 글을 통해 순천대가 국립 의대 공모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와 순천시가 전남도 공모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직접 신

청서를 내는 것은 의대 유치 가능성이 0%라며, 현 상황에서도 순천대가 유리한 만큼 참여해서 50%의 선정 가능성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특히 "결정권자인 정부의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의대 유치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의 입장 발표이후 여전히 공모 참여 반대를 주장하는 의원이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신중한 의정을 보이는 등 전황의 분위기도 밝았다. 처음부터 공모 참여를 주장해 온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은 "김 의원의 입장은 지역별전을 위한 고무적 발언으로, 지역발전 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순천대가 공모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의대 설립 문제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이 이미 공모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항으로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는 없다. 순천대는 정부와 전남도를 믿고 공모에 참여하길 바란다.

비엔날레·민중운동 헌법수목 손잡은 광주·부산

광주시와 부산시가 현대미술 축제인 비엔날레 개최 성공과 5·18, 부마항쟁을 아우르는 민주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16일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열린 2024 부산비엔날레 개막식은 두 지치 단체의 연대를 보여준 현상이었다. 오는 10월 20일까지 '어둠에서 보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산비엔날레를 찾은 강기정 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부산비엔날레 개최를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했다. 강 시장은 또 오는 9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판소리'를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홍보도 잊지 않았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비엔날레전시관과 양림동 옛 파출소 등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본전시를 비롯해 31개 국가·문화기관이 참여하는 파빌리온 전시로 구성된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와 함께 '대한민국 미술축제 공동선언'을 발표했던 두 도시는 현재 비엔날레 입장권을

30% 할인한 통합입장권을 판매하는 등 공동 홍보도 진행 중이다.

이번 부산 방문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단체와의 연대 자리도 마련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해왔으며 대구 2·28 민주운동, 6월 민주항쟁, 제주 4·3 등 민주 세력들과의 연대에 힘을 기울여왔다.

강 시장은 이날 '부마·5·18 정신 민주역사 계승연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 지역 관계자들 역시 '헌법 전문 수록은 부마와 5·18 정신을 계승하는 첫 걸음'에 영호남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엔날레 성공과 민주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두 지역이 힘을 모은 만큼 철저한 행사 진행과 준비로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無等鼓

"...보내주신 합죽선인 절삼은 남다른 관심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미치지오리까. 도깨비 불빛을 이긋한 거칠고 적막한 '귀린황적' (鬼隣황寂) 한 속에서 반갑게 받고 보니 감격스러움 더할 나위 없습니다."

미술사학자 최열이 펴낸 '추사 김정희 평전' (돌베개·2021년)에 실려 있는 추사(1786~1856)의 편지글이다. 1851년 단오절을 앞두고 도승지인 규재 남병철(1817~1863)이 추사에게 전주 합죽선을 선물하자 보낸 답신이다. '조선 왕조실록' (철종실록)에 기록된 규재의 절기(卒記)는 그의 생애와 활동

사 전체 위치와 움직임을 측정하는 '흔전'을 제작하고, 천문 역법(曆法)과 천문기구 매뉴얼인 '추보속해' (推步續解)와 '의기집설' (義器集說) 등을 편찬한 천문학자·수학자였다. 바둑과 서예에도 능했다고 한다. 동생인 병길 또한 천문 역법학자로 활동했으며 형님의 문집 '규재유고' (圭齋遺稿·1864년)를 펴냈다.

달 뒷면 크레이터 명칭을 '남병철 크레이터' (Nam Byeong-Cheol Crater)로 공식 명명했다. 앞서

남병철 크레이터

경희대 우주탐사학과 '다누리 자기장 탐사체 연구팀'이 IAU에 제안한 이름이다.

이번 크레이터 지명 명명을 계기로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남병철·병길 형제를 비롯해 19세기 천문과 수학 분야를 파고 들었던 실학자들과 과학사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또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우주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달 탐사에 다시 뛰어들고 있는 이때, 한국의 우주개발 탐사를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기고



이대영 문화기획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길에서 서로 인사하는 어른들을 심심치 않게 봤었다. 철저한 인사 교육을 받았던 나 역시 동네를 돌아다니며 인사하는 건 일상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타인에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어려워졌다. 헬스장이나 자주 가는 카페에서 종종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적 친밀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하지 않는다. 바쁘게 살다 보면 남에게 마음을 여는 일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지기 쉽다. 아마도 무례한 관심과 친밀감에 비례하지 않은 이야기로 데인 사람이 많아 서릴 것이다. 나조차도 그랬다. 딱히 할 이야기도, 친해 질 마음도 없는데 괜히 말 걸지 않았으면 했으니까.

하지만 마을 커뮤니티와 일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삶의 터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알고 지내게 되니 길을 걷다 만나 스물토끼를 하는 건 흔한 일이 되었다. 주민 설명회에서 만난 통장님, 감 나누어 주시는 옆집 선생님, 에너지 넘치는 이웃 카페 사장님까지. '모여봐요 동물의 숲'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을까. 이웃과 친하게 지내면 괜히 내 개인사도 털어놔야 할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